

●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 '용지 부족' 난리났는데...다음날 새벽에야 첫 회의	정치	주요뉴스
2	"통행료 없다" vs "수수료 있다"...정상화 언제쯤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사태 해결에 나섰어야 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취재 결과, 대책 회의는 열지도 않은 채, 예정돼 있던 투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다음 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 8명 가운데,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출근했던 이들은 오민석 당시 위원장 등 5명뿐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20분 넘게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던 오후 4시 12분 이후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민석 전 위원장 등 3명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4동 투표소를 찾아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잡아둔 통상적 현장 시찰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투표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가 터졌지만, 그 이후에도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예정돼 있던 서울 강남구 세텍 전시관으로 가 개표소 점검 일정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 받거나 언제까지 투표를 연장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 전 위원장 등 서울시 선관위원 5명이 사태 발생 후 처음 모여 회의한 건 이튿날 새벽 4시.

투표 중단 사태가 본격화한 지 무려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마저도 언론 배포용 입장문을 논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당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늦게는 밤 10시까지 제각각 연장한 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

서울시 선관위 측은 SBS에 "실무진 등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가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오민석 당시 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재 과정 등을 확인할 기록과 서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오민석 당시 위원장에게도 사태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위해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핵심: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들이 대책 회의는 열지도 않은 채, 예정돼 있던 투개표소 현장 시찰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던 걸로 확인됐다.

(2)기사/뉴스요약

<앵커>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는 없다는 미국과,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쟁 전 자유 해역으로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해 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과 이란에 대한 미 해군의 해상 봉쇄 해제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1일) : (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봉쇄를 해제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협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30일 내 기뢰를 제거하고 해협을 개방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이 반대한 통행료 대신 안전 관리 명목으로 선박들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교부 장관 (현지시간 12일) :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와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만과의) 공동 프로그램이 발표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행료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어, 완전한 무료 통행이 안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에도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뢰를 피해 이란이 제시한 안전항로로 선박이 이동한다고 해도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대형 선박 500여 척이 빠져나오려면 병목현상은 불가피합니다.

하루 평균 130척의 선박이 오가며 세계 석유·천연가스 물동량 약 25%를 소화하던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후 하루 평균 다섯 척 수준으로 통항량이 급감했는데, 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향후 협상이 순조롭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실감한 이란이 향후 본 협상 국면에서도 이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종전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포함돼 있지만 통행료는 없다는 미국과,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쟁 전 자유 해역으로 돌아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CMMC	사이버보안 성숙도를 뜻한다. 미국 합정의 유지·보수·정비(MRO)에 참여하거나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는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하는 필수 인증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사회연대임금	기업의 수익력과 관계없이 노동의 종류와 질이 같다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1951년 스웨덴에서 도입했던 '레-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